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창립 90돐에 즈음하여 금문자로 빛나는 천리마시대 청춘들의 위훈

천리마시대를 두고 그때의 동시 대인들은 청춘시대라고 부른다.

누구나 세 살에 대한 열정이 유통을 찾았고 창조의 힘은 배제해졌으며 심장의 피는 더욱 끓어 도처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새 기적들이 창조되었다.

강선의 도로에 금은 6만t 능력

의 불파암연기에서 1·2단의

강장, 월, 길 철도로 통과 금은

1·9년의 광성능력을 타파하고

2·7단의 선철을 뛰어넘었다.

한밤 자고나면 새 기적이 쟁

되고 또 한밤 자고나면 새 기

날의 기록이 남은 것으로 되는

창조와 법칙의 시대, 이것이 천

리마시대였다. 이런 시대의 청

년들의 심정은 어떠했으랴.

피끓어라 청춘! 불러라 심장! 우리를 청년들 사회주의 전설자다

...

오늘도 청년들의 심장을 높여

게 하는 이 노래도 그때 창작된

것이다.

주제 4·7(1958)년 3월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전행렬 력사적인 전국청년사회

주의 건설자대 회는 청년들을

천리마대 철도를 통하는 앞장에 서

도록 있게 불러일으킨 의의길

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사하였다.

«오늘날 사회주의건설자와

영예보다 더 큰 영예는 없으

며 청년의 모든 열정과 지혜

와 능력을 조국의 사회주의건

설에 다 바치는것보다 더 보

람한 일은 없습니다.»

온 나라의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땅 위에 살기 좋은 사회주의 땅을 건설하기 위한 용기를 원을 전달하기 위해 천사같이 떨어져나섰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한다. 어부, 다래만 우거졌던 미륵계 기슭에 청춘도시를 일며 세운 송남청년안광 개발사업과 그들의 위용 이어 연연 수백억 원의 광활한 지역에 대규모의 청남청년판전을 개발한 청년들의 위훈을.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천리마를 타고가는 첫 부녀라는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위훈도 지팡스럽고 동정 양은 청년들이 빙그레 기슭을 헤나던 청년들이 광원산을 넘어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공사의 첫 단을 박았다. 일이 힘들 때마다 라는 우물가에 모여앉아 항일 빙그레 산림가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청호를 딴은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의 혁성기념관 밭을 모아제 하는 집수정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면서 영웅적인 두쟁을 벌여 2년은 걸려야 한다만 단축을 8개월동안에 목표하고 야말았다.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꽂피워갈 불같은 열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하늘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유물은 관찰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
군집에서 경총지도국 일군들
과 종업원들은 창립 30돐을 맞이하였다.

인민사랑의 위대한 역사속에

이민위원회는 행정과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인민들이 보다 유풍하고 문명

한 생활이 필요로 하기 위해

온갖 실현과 고고를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의 자족은

경총지도국을 성립해주시었다.

천어버이의 심정으로 첫걸음을

뗀 지도국의 경영관리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끌려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크

고자는 모든 사업을 통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도국에 어

여 디న원들을 찾으시며 평신히

인민을 위한 상점과 금당봉사기

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그 수행방법과 방도에 이

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총상

점을 찾으시어서는 이 생활은 광

복지에 새로 전진하는 대중봉

사당의 원자애로장기자기 되어야

한다는 강구한 가르침을 주시

었다. 시간간 차지에게 놀라울

을 쓰는 청부모의 대상화된 실정

으로 그후에도 지도국에 여러

상당봉사기지를 찾으시며 기여

관리를 대망하고 통이 크게 벌리

며 상품공급체계와 앞으로 영업

하게 될 대중봉사당의 원자애.

경영률자보장을 비롯한 실무적인

창립 30돐을 맞는 경호지 도 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30돐을 맞는 경호지 도 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식당을 짓자면 많은 돈이 들것이라고 하시면서 식당으로서는 아주 고급한것

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훌륭히 꾸려진 식당의 내외부를 일일이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당이름을 간판만 보아도 마음이 끌리게 잘 저어아

한다고 하시면서 맛까지 험기가 넘쳐나려는 품을 맡아 『향만루식당』이라는 이름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이름까지 저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말

데 태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식당운영을 정상화하고 본성화

을 더욱 높여 인민들이 그 력을 보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식당이름을 『향만루식당』으로 고쳐 대중봉사당

기지로서의 면모가 더욱 푸렷이 살아나도록 전어버이의 사랑을

풀려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말

이것은 경총지도국민이 아닌 전체 인민봉사부문 일군들이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간직하고 발달하거나야는 사랑을 받아안으려 우리의 정령한 군로자들은 수십년 새 월

만 좋은 자리에 그 미친까지 참아주시었다.

대중봉사당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나리의 크고자은 모든 사업을 통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도국에 어여

며 디න원들을 찾으시며 평신히

인민을 위한 상점과 금당봉사기

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그 수행방법과 방도에 이

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모든 풍물활동이 리용주구를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본주

의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인민을 위한 일상과 금당봉사기

지로서의 면모가 더욱 푸렷이

증고한 뜻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는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한마음으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 같다.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나아가리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를 들으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청년문화의 생명선입니다. 청년동맹은 당의 령도 밑에서만 사회주의청년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대표하여 까닭에 개성원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친 대성당, 평양시민들과 더불어 사회주의의 마지막 성과를 보여주는 행렬적 전진이 떠나고 있는 각종적인 시기에 우리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창립 90돐을 맞이하게 된다.

주체의 청년운동이 끝어온 자랑한 낸 대들을 잡회길이 둘러쳐보는 우리 청년 선우들의 가슴마다에서 아름다운 청춘의 노래가 울려나온다.

세찬 바다 길들여 새땅을 절친 그 기적연 청춘들 우리가 있다네

…

청년들 누구나 즐겨부르고 보람찬 두정과 생활속에서 너무도 친숙해진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직정으로 충만한 노래를 들을수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청춘의 구슬땀을 흘리며 미처온 우리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이 빙빙하게 안겨오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가슴을 후텁지게 하다. 명령하고 말랄한 정서를 자아내는 노래의 선율도 청년들의 심리에 꼭 들어맞는다. 하지만 적조로운 외부의 카나파 광란에 넘친 생활의 음향으로만 대할수 없는 의미깊은 구절이 심장에 두드린다.

『애국에 불타는 청춘들이 당을 따라 앞으로』,

노래의 이 구절에는 위대한 당의 명도를 따르는 길에 청춘의 가장 큰 보람과 영광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청년들의

톱풀한 모습이 시대의 거울처럼 비껴있고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신심도높이 계전해 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심장의 배동이 굽이친다.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으며 그들을 가리켜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주인공, 실제로 가슴벅찬 부풀이다.

하지만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손길이 없으면 아무리 귀중하고 힘 있는 청춘의 험기도 빛을 끌고 사라져버리게 된다.

물령의 세계를 요약하게 광고하는 차

본주의 나라들에서 명예와 재부, 항파에

눈이 떠나 허리에는 청년들을 보라.

『오늘 조선청년들은 김정은 동지의 명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세상에는 나아가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청년대군, 밀음직한 세승자들을 가진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청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조선의 현실은 태양의 빛발을 떠나 아름다운 꽃을 생활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의 풍

운과 청춘의 삶과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것을 뿐이니 실증해 주고 있다.』

『청년들을 끌어들이 사랑하고 내세워 주시는 명도자의 그나쁜 믿음과 그이의 위엄을 충직하게 밟들이나가는 청년대군이 되기로 삼은 청년들이 조국의 민족에게 헌신해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기상이며 절을 으로 악동하는 내 조국의 위용을 위상에 담아 만민공동에 와올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기술이다. 사회와 진단, 조국과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은 스스로 찾아하는 미풍의 소유자들, 영웅조선의 새로운 세 유신자들을 창조하며 금에 달고 조국의 영에 눈물을 눈물로 흘려온 습니다!』

이것이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창립 90돐을 맞는 역사의 현역에서 우리 청

세대들의 정신도덕풍모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전도를 알수 있다. 세계의 정보적인 유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수한 청년들이 있으며 그들을 대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서 주체조선의 활동한 한마디를 들을수 있다.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으며 그들을 가리켜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주인공, 실제로 가슴벅찬 부풀이다.

하지만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손길이 없으면 아무리 귀중하고 힘 있는 청춘의 험기도 빛을 끌고 사라져버리게 된다.

물령의 세계를 요약하게 광고하는 차

본주의 나라들에서 명예와 재부, 항파에

눈이 떠나 허리에는 청년들을 보라.

『오늘 조선청년들은 김정은 동지의 명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세상에는 나아가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청년대군, 밀음직한 세승자들을 가진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청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조선의 현실은 태양의 빛발을 떠나 아름다운 꽃을 생활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의 풍

운과 청춘의 삶과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것을 뿐이니 실증해 주고 있다.』

『청년들을 끌어들이 사랑하고 내세워 주시는 명도자의 그나쁜 믿음과 그이의 위엄을 충직하게 밟들이나가는 청년대군이 되기로 삼은 청년들이 조국의 민족에게 헌신해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기상이며 절을 으로 악동하는 내 조국의 위용을 위상에 담아 만민공동에 와올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기술이다. 사회와 진단, 조국과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은 스스로 찾아하는 미풍의 소유자들, 영웅조선의 새로운 세 유신자들을 창조하며 금에 달고 조국의 영에 눈물을 눈물로 흘려온 습니다!』

이것이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창립 90돐을 맞는 역사의 현역에서 우리 청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춘의 노래이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그나쁜 짓이자 자행이다.

년들이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의 노래와 함께 세계를 향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당과 청춘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청년들의 참된 삶이 있고 맑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세우는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 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청

천만군민의 치솟는 원수격렬의 기상

선군조선의 서리발치는 기상앞에 흔비
백산한 원수들이 저들의 위악성을 세게
의 면전에서 날달이 드러내놓고 있다. 위
파리폐체처럼 모여들어 그 무순 대책을 혼
의한다 아련다 하며 범석대고 있지만 도
부지 용빼는 수가 없어 천전궁증하는 관
이다.

지금 남조선은 일대 수파장이다. 최근
남조선집권자는 서울에 기여를 미합동참
모본부의 의회과 청와대수석보좌
관회의, 8. 1 5경 축사에서 『북의
추가적인 도발증』을 미드는 한편 『북
핵, 미싸일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이여
야 한다느니,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
겠다.』느니 하고 러설하며 정식악화를
초래한다. 천만군민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이 땅, 이 높을 아니 온 행성을 세차게 뒤
흔들고 있다.

그 어떤 악력이나 간언죄설에 넘어가
장강에는 초강정으로 맞받아나가는 조선
의 담력과 배방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이 이처럼 낮춰서 깨닫게 절려 퇴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간판도로를
개발속도에 세상을 뛰어넘지만 예전도수
형태에는 몇년이 더 걸릴것이라고 생주
정을 하면 미국은 조선이 대북간판도미
싸워 험해 유엔민도의 소형화에 성공하였
다고 자慰하였다.

상식도 리성도 없이 부정의의 힘을 함
부로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침략자, 호전
황들은 오직 힘으로 단세계 풍물이 한
다는 의지를 알고 우리는 죽제의 책자를
을 영향 가서버려기 위해 포악한 무리를
을 정의의 힘으로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있다.

대대 손순 사무친 민족의 원한을 풀고
지구상에서 침략과 억압의 쇠사슬을 절
이내며 부정의의 세력을 말끔히 청산
하기 위해 천만군민이 정의의 성전에 뛸
갖은 모지름을 쓰고 있다.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미쳐날
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학통을
무진막강한 배우신혁명 강군의 군사적
위력으로 단호히 것 풍개버려려는 불같
의지로 천만군민이 심장의 피를 떨
풀들이고 있다. 공화국정부성명을 하여
하여 미만대결전에 충돌기 해나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펴듯
높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고 빼를 지어 땅벼
들때면 땅벼들려, 우리는 끄떡 안한다. 그
이런 봉에도 알력도 우리의 전진을 마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영웅적조선인민의
대답이다. 천만군민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이 땅, 이 높을 아니 온 행성을 세차게 뒤
흔들고 있다.

그 어떤 악력이나 간언죄설에 넘어가
는 원수들의 선습을 바꿀 우리가 아니라
다. 원수들이 칼을 끌면 장검으로 내리
치고 흥을 내면 대포로 맞서며 해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핵파격
을 만리마대 친군의 초소와 전구들이 대
우드로 전진과 악동의 불도가니로 화
불변하다.

조선민족에게 국로왕단과 민족불법의
비극을 들의 우고 전쟁을 강요 한지도 모
자와 수십년간 우리에게 핵위협공갈을 가
해온 미국이 이제는 반대로 국도의 불안
과 공포속에 점점 하리고 있다.

우리가 피땀을 바쳐 실질적인 쇠퇴단
을 통솔능력을 갖춘 것은 수십년간에 걸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계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미국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
난하였다.

성명은 최근 유엔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 려온데서 조선반도

국을 바탕으로 만들어놓은 선
군조선의 위력을 국제 사회가 둘러온 속에
지켜보고 있다.

적대세력의 사상 뿐에 없는 고립압살책
동을 단호히 제압분쇄하퍼 존엄과 자주
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승리의 대로로 향복 열어놓은 우리
공화국의 모습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경탄을 금지 못하고 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
파 노도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
신 비약과 장엄한 위용은 세계의 자주화
를 힘차게 선도하고 있으며 그 진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되고 있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제
국주의의 압력이 최후도 흘러나 없는 유
일한 나라, 무궁도록 존엄을 빛내일 강대
한 나라에 대한 궁지와 자무심으로 세차
게 들어오고 있다.

우리 공화국이 주제의 핵강국, 세계적
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
직한 승리를 확보한 친구들이 대
우드로 전진과 악동의 불도가니로 화
하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
로막으려고 아무리 발광해도 지역생명을
억척불법의 혁명방식으로 하는 우리에
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제재와 암살의
가증스러운 차단봉과 장벽들을 박차고
진진 또 전진하며 승리만을 펼치는 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의 초강경의지에 당황망조한 미
군은 군사적대움직과 함께 그 무슨 『외
교적해제』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 『전쟁
분지』언제를 제작해도 트럼프가 갑자기
공식식상에서 『북의 힘』상을 향상 고려
할것』이니, 자기보다 『영화적해제법』이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니 하
는 따위의 낯간지려운 수작을 늘어놓고

미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당국자들도 출출이 나서서 『미국은
북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느니, 『대회
도 북핵문제 해결방안중의 하나이다.』느
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당장
저들의 목에 와닿은 투자비한 정벌의 비
수를 꾀하고 『대회』와 『협상』, 『외교적
해제』의 간접임에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려는 교활한 흥계의 밥로
이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이런 헛된 기도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만일 미국이 계속
미연을 즐고 대조선반대시작동과 제재압
박소동에 광분한다면 문분초고당문 시
간을 보내다가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
게 될 것이다.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혁명적원칙,
백두의 달력과 배방으로 부정의의 밥팡
을 통쾌하게 짓부시며 최후승리의 맘과
를 향해 맹렬히 진진하여 선군조선은
지금 최강의 혁역제력을 강령번영의
담보로, 자강역제일주의를 백승의 보검으
로 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고 있다.

네세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감행되
고 있는 미제의 암반적인 제재압살책동
속에서도 편전련승을 이룩하여 온 천만
군민은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미제의 밥작적책동을 쳐갈피하고 반미
전진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들격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
력의 적대행위와 침략책동이 지속되는
한, 지구상에 불의와 악의 최근인 제국주
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미 끌어린
정의의 해보검을 더욱 억세게 떠려갈것이
며 자주도 정의도 힘으로 지키고 그 위
력으로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염려나갈것
이다.

허영민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백두산청년강국의 밝고 창창한 미래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들의 반향

백두산청년위원회의 불멸의
명맥을 끊고자 이 어수신
기이 전하는 위원회는 대기
임비로 흥물이 일떠선 청년을
동사식관을 활활한 재일조선
청년학생대표단 성원들은 격
동원 심정을 토로하였다.

대표단단장 김철호는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청년운동의 발전로정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역사와 있달았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청년들을
제일대원수님으로 세운은
경에 헌신과 헌신을 주신
주신다.

그이의 마지막으로 손길은 수
백만 청년들을 주체혁명업
수행의 맹장,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끊으로 키우는 자양분
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시
절을 빛내는 조국청년들을
일생세우신것은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이었다.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위대한
정치와 평도가 있었기에 제일
동포청년들도 국제죽음운동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미대운
선봉대로 자리남았다.

이역땅에서 나서자라는 새
세대들을 끌고온 향촌에 애
송현 힘을 주는 다음과 같이
경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유엔안전보장리사회와
국제재해경기조작과 때를 같
이 하여 구도로 무보해지고 있
는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전쟁
인성명이 18일 유엔총회와 유
엔안전증명통신

김정은원수님의 행도따파
조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강
국건설의 주요진구마다에서
놀라운 거적과 혁신을 창조하
고있다.

방방곡곡에 솟아오른 만년
대계의 창조불같마디에 『청년』
이라는 이름을 궁지놓이 새기
며 강성한 배일을 앞당겨가는
청년전위들의 협운은 새인을
경장시키고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래지는 대고조전역마다에서
총성과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
을 불태우는 이번 강렬의 대
오, 민음직한 계승자들이 있어
조국의 천진숙도가 더욱더 빛
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해외에서 사는 우리
제일조선청년들도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대원수의 한
성원이라는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청춘송가』의 노래를
궁지 높이 부르고있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을 유행의
꽃밭들에 끌고온 향촌에 애
송현 힘을 주는 다음과 같이
경조하였다.

이역땅에서 나서자라는 새
세대들을 끌고온 향촌에 애
송현 힘을 주는 다음과 같이
경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인성명이 18일 유엔총회와 유
엔안전증명통신

제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2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3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4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5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6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7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8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9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0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1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2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3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4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5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6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1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2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3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4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5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6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7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8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79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80회 조선청년학생대표단
제181회 조선